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유가 · 장기금리 급등..미국증시 낙폭 확대

- 미국증시 하락: 다우 -2.19%, 나스닥 -1.74%
- 연준 FOMC서 정책금리 동결..인상의견 3명
- 미국-이란 무력 공방 재개, 국제유가 급반등

Summary

미국증시 등락 끝 하락 마감

7월 29일 수요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장 중 혼조 양상을 보인 끝에 주요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 중동 지역을 둘러싼 긴장이 다시 고조되며 국제유가가 급반등했고 전일 SK하이닉스의 예상을 하회한 실적 발표 이후 반도체주 투자심리가 전반적으로 악화됐으며 연준은 FOMC에서 매파적 신호를 주며 금리를 동결함. 적극적 금리 인상 신호를 주지 않은 것으로 읽힌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주요 지수는 하락 폭을 축소, S&P500과 나스닥은 반등하기도 했지만 기자회견이 끝난 이후 재차 장 중 저점 수준으로 낙폭을 확대.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2.19% 하락한 51,594.14에 마감했고, S&P500 지수는 1.52% 하락한 7,316.15에 거래를 마침. 나스닥 지수는 1.74% 하락한 24,442.942에 거래를 마쳤고 나스닥 100지수는 2.06%, 러셀2000 지수는 1.61% 하락 마감함. 변동성 지수 VIX는 13.45% 급등한 20.66을 기록.

(다우 -2.19%/ S&P500 -1.52%/ 나스닥 -1.74%/ 러셀2000 -1.61%)

FOMC 금리 동결..인상 의견 3명

미 연방준비제도가 이틀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3.50~3.75% 수준으로 동결함. 연준은 이로써 지난 1월과 3월, 4월과 6월에 이어 5번 연속 금리를 동결. 다만 연준은 이번 회의에서의 금리 동결에 대해 위원 12명 중 9명이 찬성했지만 3명이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힘. 반대표를 던진 3명은 로리 로건, 델러스 연은 총재,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이며 이들은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25bp 인상할 것을 주장. 이들은 지난 4월 FOMC에서 금리 동결에 찬성하지만 인하 기조를 암시하는 연준의 성명서 문구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던 바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매파적 입장을 드러내 금리 인상을 주장. 연준은 이번 회의에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2% 목표치를 웃돌고 있다며 위원회는 물가 안정을 이룰 것이라고 밝힘. 또 중동 분쟁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에도 경제 활동은 견조한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며 생산성 향상과 자본 투자는 강력하고 실업률은 변화가 거의 없다고 진단함.

한편 회의 종료 이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지난 5년간 이어진 높

은 인플레이션으로 가계와 기업, 시장 전문가 등이 연준의 물가 목표치가 2%보다 높은 수준으로 다소 완화됐을 것이라고 인식하게 됐다고 지적. 워시 의장은 연준의 물가 목표는 '2%'로 고정돼 있으며 완화된 목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 연준의 물가 목표에 대한 강경한 발언은 매파적 신호로 받아들여짐. 다만 그는 시장 금리와 실질 금리가 이미 큰 폭 상승해 금융 여건이 상당히 긴축됐다고 시장이 스스로 긴축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주장, 당장 정책 금리를 움직일 것이라는 시장의 경계감을 완화시킴. 또 금리 인상이 고인플레이션의 해결책일 수 있지만 유일한 해법은 아니라고 말해 금리 인상을 단시일 내 단행하지는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

종합적으로, FOMC 회의의 결과 자체는 매파적인 신호를 보냈으나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은 그다지 매파적이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며 때문에 기자 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일부 지수가 반등하는 등 시장 내 경계감이 다소 완화됐던 것으로 읽힘. 또한, 시장 금리가 이미 큰 폭 상승해 금융 여건이 상당히 긴축됐다는 발언은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로 장기 금리 급등의 재료가 됨.

미국-이란 무력 공방 재개..국제유가 급반등

장기 금리 급등과 함께 이날 다시 고조된 중동 지역을 둘러싼 긴장감은 결국 시장이 마주한 현실이 되어 기자 회견 이후 시장 하락을 견인.

지난 24일 미군이 2주간 지속해왔던 이란에 대한 공습을 멈췄고 이후 이란 역시 미국에 대한 공격을 중단해왔음. 양측은 무력 공방을 멈추고 평화적 해법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재개하는 듯 보였으며 전일에는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종전 MOU 복구 방안에 근접했다는 외부 언론의 보도도 있었음.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중반대로 떨어진 가운데 평화적 해법을 모색할 것이라는 기대는 다만 전일 이란이 요르단 내 미군 기지를 노린 탄도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고 미국도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이라크 내 친이란 세력에 대한 공격을 단행하면서 다시 실망으로 바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의 요르단 미군기지 기습공격을 언급하며 미사일을 모두 격추했지만 "강력하게 타격할 것이며 그들은 얻어맞을 것"이라는 거친 표현으로 강력한 응징을 경고.

한편 미국 재무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해상 보험 구매를 강요해 사실상의 통행료를 부과해온 이란 기업 두 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으며 이란산 원유를 운송하는 이른바 그림자 선단 관련 기업 8곳도 함께 제재대상에 올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끝까지 놓을 수 없는 이번 분쟁의 핵심으로 여기고 있는 이란과 이를 저지하고 통제권을 가져오려는 미국의 이해관계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맞서는 형국으로 미국의 이번 조치는 이란을 실질적 협상에 복귀하도록 압박하는 지렛대라는 해석이 우세. 다만 최악의 경우 긴 냉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비관적 시각도 존재.

특징종목

유가 급등으로 에너지 섹터가 1.98% 상승했고, 방어적 성격의 필수소비재 섹터도 0.26% 상승했지만 이외 대부분 주요 업종이 하락. 산업재 섹터 낙폭이 3.24%로 가장 컸으며 정보 기술 섹터 낙폭이 2.50%로 그 뒤를 이음. 금융이 1.57%, 유틸리티가 1.35% 등으로 큰 낙폭을 기록함.

마감 후: MS, 메타 등 빅테크 실적

장 마감 이후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플랫폼스 등 주요 빅테크 실적이 공개.

마이크로소프트(+0.71%)는 전분기 900억 1,000만 달러 매출과 주당 4.81달러 순이익, 조정 기준 주당 4.74달러 순이익을 기록해 모두 시장 예상을 상회. AI 투자수익과 클라우드 사업부 성장이 회계연도 기준 4분기 깜짝 실적으로 이어짐. 마이크로소프트는 전분기 조정 EPS가 4.74달러를 기록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고, 총 매출은 1년 전에 비해 18% 증가한 900억 1,000만 달러로 집계돼 시장 예상 876억 2,000만 달러를 상회. 주력 클라우드 부문 애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 클라우드 매출 성장이 43%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 39.6%를 웃돌았고 애저 매출은 연간 기준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유료 사용 계정도 3,000만개를 돌파. 설비투자(Capex) 규모도 358억 달러로 시장 예상 352억 2,000만 달러를 상회했으며 이후 진행된 컨퍼런스 콜을 통해 올해 Capex 규모는 5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밝힘. 빅테크의 투자 대비 낮은 수익성과 그로 인한 Capex 확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시장 내 주요 우려 요인이었던 만큼 마이크로소프트의 높은 클라우드 매출과 수익성,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확대되고 있는 자본지출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시장 전반에 양방향으로 긍정적. 시간외 거래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6% 이상 상승.

메타 플랫폼스(-1.31%)는 전분기 매출이 608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27.9% 성장했으며 예상치도 상회. 다만 지출이 지난해 대비 55% 이상 급증한 영향으로 영업이익은 오히려 8% 감소했으며 순이익은 14% 감소. 조정 후 EPS는 6.18달러를 기록, 시장 예상을 하회. 가상현실 기기와 웨어러블을 개발하는 리얼리티 랩스 사업부의 부진으로 인한 손실이 지속되고 있음. 일일 활성 이용자는 1년 전에 비해 3%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현재 진행분기 매출 가이드스는 범위 하단에서 시장 예상을 하회. 자본지출(Capex)은 연간 가이드스를 기존 1,250억~1,450억 달러 대비 높은 1,300억~1,450억 달러로 조정. 투자 대비 수익이 여전히 부진한 가운데 자본 지출 규모는 지속 확대되고 있으며 실제 잉여현금흐름은 지난해 대비 90% 이상 쪼그라든 7억 8,000만 달러에 그침. 자본 지출 증가와 잉여 현금흐름 감소는 이들 빅테크들의 조달 비용 증가와 맞물려 현재 시장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우려 요인으로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는 10% 이상 급락.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5.33% 하락

하이퍼스케일러의 현금 흐름 악화와 조달 비용 급증으로 인한 반도체 수요 약화에 대한 우려, NAND 가격 전망 하향, 중국 CXMT 상장으로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오른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우려, 마침 불거진 중국 내 노광장비 국산화 소식까지 반도체 투자심리를 악화시킬만한 요인들이 최근 여럿 부각된 가운데 전일 SK하이닉스가 발표한 전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를 하회, 연쇄적으로 미국 반도체주의 급락으로 이어짐.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닷새 연속 하락했으며 낙폭도 연일 더 확대되는 양상으로 이날은 5.33% 하락했으며 이 지수를 추종하는 ETF, SOXQ(-5.28%)는 이날 하락으로 고점 대비 28.69%의 낙폭을 기록하게 되었으며, 종가에서 120일 이동평균선을 살짝 이탈함. SOXQ는 지난 2025년 5월 이후 120일선을 지지선 삼아 상승 추세를 유지해왔으며 지난 3월 한 차례 이탈했지만 하루만에 회복한 바 있음. 때문에 120일선 지지/이탈 여부가 단기 추세에 있어 중요할 것으로 보임.

개별 종목으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9.94%)의 낙폭이 컸고, AMD(-5.51%), 인텔(-5.12%), 쉘컴(-4.42%), 샌디스크(-7.32%), 웨스턴 디지털(-0.32%), 램 리서치(-6.40%),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8.40%), KLA(-10.80%), 엔비디아(-3.55%), 브로드컴(-2.78%) 등 밸류체인 전반이 하락.

전일 마감 이후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한 시게이트 테크놀로지(+2.29%)는 전반적으로 위축된 분위기 속에서도 상승.

엔비디아(-3.55%)는 이날 전분기 실적을 현지시각 8월 26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힘.

SMH(-4.79%), SOXX(-5.38%) 등 주요 반도체 ETF 대부분이 고점 대비 20~30% 내외 낙폭을 기록하고 있음. 다만 DRAM(-6.11%), DISK(-5.93%) 등의 메모리 중심 ETF는 고점 대비 45% 내외 하락 중.

AI 인프라 투자 확대 내러티브 약화에 대한 우려는 AI 발전으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적 변화 위협에 직면한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는 상승 요인이 되기도 함. 이날도 이 같은 수급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남. 서비스나우(+4.65%), 세일스포스(+3.79%), 오토데스크(+3.48%), 어도비(+5.72%), 인튜이트(+6.43%), 워크데이(+5.21%) 등의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했고 대표 소프트웨어 ETF IGV도 0.64% 상승.

방어주 찾기: 필수소비재 강세

전일 한국증시가 급락세를 보였지만 식료품과 일부 유틸리티, 제약, 화장품 등 필수소비재 업종으로 분류되는 종목군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임. 미국증시에서도 이 같은 흐름은 일부 포착돼 월마트(+0.99%), 코스트코(+0.77%), 코카콜라(+0.92%), 달러 제너럴(+2.15%), 타겟(+1.18%), 달러트리(+1.73%), 몬텔레즈 인터내셔널(+4.02%), 콜게이트-

팜올리브(+0.82%) 등이 강세.

유가 상승이 이날 시장 하락 요인 중 한 가지였고, 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주 강세는 역설적으로 시장 하락 안에서 헤지 수단으로 작용함. 엑슨 모빌(+2.42%), 셰브론(+2.28%), 코노코 필립스(+3.47%), EOG 리소시스(+4.51%), 옥시덴탈 페트로리엄(+3.89%).

이외 특징주

힘스 앤드 허스 헬스(-14.73%)는 미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힘스앤허스가 적절한 동의 없이 추적 기술을 통해 메타와 스냅을 포함한 광고주들에게 민감한 사용자 건강 정보 등을 공유했다며 소송을 제기. 회사는 근거가 없는 소송이라고 반박했지만 주가는 급락.

마감 이후 실적 발표한 기업들의 시간외에서의 주가 등락 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퀄컴(-4.42%)은 전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을 소폭 상회하거나 부합하는 수준이었지만 현재 진행 분기 실적 가이드스가 시장 예상에 미치지 못한 영향으로 시간외 거래에서 10% 이상 하락. 회사는 메모리 공급 부족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부진한 전망의 이유로 꼽았으며 가격 인상 계획을 밝힘.

세계 최대 커피 프랜차이즈 스타벅스(+1.01%)는 시장 예상을 웃도는 매출과 EPS, 이익률과 동일 점포 매출 증가를 기록한 가운데 시간외 거래에서 6% 내외 강세. 브라이언 니콜 스타벅스 CEO는 이번 분기가 모멘텀을 확실히 증명한 시점이라고 자평했으며 ‘백 투 스타벅스’ 전략을 바탕으로 매장 서비스 개선과 시설 투자를 적극 진행한 점이 고객 재유치로 이어졌다고 설명.

치폴레 멕시코 그릴(+2.18%)은 전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상회한 가운데 시간외 거래에서 5% 내외 상승. 스콧 보트라이트 CEO는 메뉴 혁신과 리워드 프로그램 강화를 통한 고객 재유치가 고무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자평. 물가 상승과 소비 침체 우려에도 다시 매장을 찾는 고객이 늘고 있으며 이에 연간 동일 점포 매출 전망을 상향.

온라인 중고차 판매 플랫폼 카바나(+0.38%)는 2분기 사상 최고 분기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지만 연간 실적 전망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한 영향에 시간외 거래에서 10% 이상 급락.

웨이퍼 제조 장비 업체 램 리서치(-6.40%)는 전분기 시장 예상을 웃도는 매출과 EPS를 기록. 특히 AI형 수요가 강력,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힘. 51.7%까지 올라온 매출 총 이익률과 37.4%까지 상승한 영업이익률은 현재 진행 분기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는 2% 내외 하락.

영국 반도체 설계회사 ARM 홀딩스(-8.11%)는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했지만 시간 외 거래에서 10% 이상 하락.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국제유가 급반등..브렌트유 90달러 돌파

국제유가가 4거래일만에 반등,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90달러선을 재돌파. 미군이 지난 24일 이후 이란에 대한 공습을 중단한 이후 양측의 무력 공방이 멈춘 상태였고 전일에는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인식돼온 종전 MOU 복구 방안에 근접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국제유가는 급속도로 안정을 되찾았던 바 있음. 다만 이란이 요르단의 미군 기지를 향한 탄도 미사일 공격에 나섰고, 미군도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이라크 내의 친이란 무장 세력을 겨냥한 공습에 나서는 등 긴장이 다시 고조되자 국제유가는 급반등.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란이 요르단 내 미군 기지를 향해 발사한 미사일은 모두 격추했지만 “우리는 그들을 아주 박살낼 것”이라며 이란에 대한 강도 높은 응징을 경고하자 유가는 오름 폭을 확대함.

뉴욕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6.56% 급등한 배럴당 84.46달러에 마감했고 브렌트유 9월물도 7.68% 급등한 배럴당 90.74달러에 마감.

국채금리 혼조: 단기물 ↓, 장기물 ↑

연준이 금리를 동결했지만 3명의 위원이 금리 인상을 주장했다고 밝혀 이른바 매파적 동결을 단행했지만 국채금리는 단기물이 하락하고 장기물이 상승해 혼조. 이번 회의를 통해 연준의 물가에 대한 경계감을 확인했지만 한편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추가 금리 인상을 서두를 것이라는 신호를 주지는 않았다는 시각은 장기 금리 상승, 단기 금리 하락으로 반영. 이날 중동 지역을 둘러싼 긴장감이 다시금 고조되며 국제유가가 7% 이상 급등한 점도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경계감을 자극, 장기 금리 상승을 압박함.

2년물 국채 금리는 연준 금리 결정 이전 4.339%까지 상승하기도 했지만 금리 결정 이후 반락해 1.5bp 하락한 4.2726%를 기록했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7.1bp 상승한 4.3773%를 기록. 30년물 국채 금리는 11.2bp 급등, 5.2007%를 기록. 30년물 금리는 장 중 5.244%까지 상승해 지난 2007년 7월 이후 약 19년만의 최고 수준을 기록.

시카고 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오는 9월 FOMC에서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60% 초반대로 낮춰 가격에 반영함.

달러 가치 이틀째 하락

미국 달러 가치는 전거래일 4거래일만에 약세 전환한데 이어 이날까지 이틀 연속 하락. 유가 급등으로 강제 압력을 받기도 했지만 당장 급한 추가 긴축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뜻을 시장에 전달한 것으로 읽힌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이후 반락한 2년물 국채 금리와 함께 하락 압력을 받으며 약세권에 머물렀음.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0.58% 하락, 100.831을 기록.

달러-원 환율은 전일 한국증시 급락에도 불구하고 서울 외환시장 주간 거래에서 15.8원 하락한 1,446.7원에 마감, 5개월만에 최저를 기록.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최근 1개월물 스와프포인트(-0.60원)를 감안시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증가 대비 4.60원 하락한 1,441.50원을 기록.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